

전일동향

전일대비 4.20원 상승한 1,402.90원에 마감

3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4.20원 상승한 1,402.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0원 상승한 1,400.00원에 개장했다. 월말 네고 물량에도 환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1,405.40원에서 고점을 찍은 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1,402.9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 중 변동 폭은 6.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6.8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00.00	1405.40	1399.30	1402.90	1403.20
엔화	940.86	950.57	936.15	948.46	-	
유로화	1639.83	1650.80	1639.27	1646.02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06	-6.88	-12.88
결제환율(수입)	-1.65	-5.65	-10.92	-21.0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섀다운 임박에...1,40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10)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02.90) 대비 0.70원 상승한 1,401.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연방정부 섀다운 임박 및 소비심리 부진에 하락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예산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섀다운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1일 자정(한국시간 13시)까지 예산 통과가 안될 경우, 연방정부는 업무 정지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미국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4.2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예상치(96.0) 및 전월치(97.8)를 모두 하회했다. 미국 8월 구인건수는 722.7만건으로 예상치(720만) 및 전월치(702.8만)를 상회했다. 달러인덱스는 연방정부 섀다운 가능성에 0.13 하락한 97.82를 기록했다. 금일 환율은 섀다운 우려 및 소비심리 부진 등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뉴욕증시 상승 마감에 따른 투심 회복에 국내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환율 하락의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97.60 ~ 1407.6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30.1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70원 ↑
	■ 美 다우지수 : 46397.89, +81.82p(+0.1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6.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803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